

| 보도 | 2022.7.19.(화) 조간 | 배포 | 2022.7.18.(월) | | |
|------|------------------------|------------|----------------|------------|----------------------------------|
|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 책임자 담당자 | 부 국 장 수석조사역 | 백규정 김규리 | (02-3145-5680) (02-3145-5681) |
| |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조 사 역 | 이석주 홍주석 | (02-3145-8412) (02-3145-8408) |
| |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수석조사역 | 이종진 박재민 | (02-3145-8030) (02-3145-8031) |
|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조 사 역 | 김태훈 송지윤 | (02-3145-7474) (02-3145-7486) |
| |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영업감독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수석조사역 | 김시형 이희중 | (02-3145-7440) (02-3145-7441) |
| | 금융데이터실 신용정보감독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선임조사역 | 유상범 김윤후 | (02-3145-7155) (02-3145-7156) |
| |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 책임자 담당자 | 팀 장 선임조사역 | 고병완 박동현 | (02-3145-8521) (02-3145-8534) |
| | | | | | |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4개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 보도자료와 파인(FINE)을 통해 안내하고자 함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 | | |
|---|-------------------------------|---|
|  |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 <input type="checkbox"/>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햅살론, 햅살론15, 햅살론유스)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input type="checkbox"/>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보세요 <input type="checkbox"/>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
|  |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 <input type="checkbox"/>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input type="checkbox"/>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input type="checkbox"/>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input type="checkbox"/>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  |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세요 <input type="checkbox"/>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  | 피싱 사기 구분 비법 | <input type="checkbox"/>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하세요 |

- 주요 서민대출상품은 ① 새희망홀씨, ② 햄살론, ③ 햄살론15, ④ 햄살론유스가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 가능

Tip!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맞춤대출(홈페이지 : loan.kinfa.or.kr 앱 : 맞춤대출)에서 상담·조회

- ① (**새희망홀씨**) 저신용·저소득층에게 3천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대출
 - **✓ 혜택** 성실 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교육이수자 등은 **우대금리**(최대 2%p 내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5백만원**까지 추가대출 가능
- ② (**햄살론**) 저신용·저소득층에게 2천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보증부대출
 - **✓ 혜택** 금융교육 이수자, 사회적 취약계층 **보증료 감면**(최대 1.0%p) 및 취급기관에 따라 **맞춤대출**, **저축은행 앱**(또는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시 **우대금리**(1.3~1.5%p) 제공
- ③ (**햄살론15**) 저신용·저소득층에게 **1.4천만원**까지 보증부대출(금리 15.9%*)
 -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은행 대출로 **대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최초 금리는 15.9%이지만 성실 상환 시 2년 후 **9.9%까지 하락 가능**
 - **✓ 혜택** 성실 상환자는 **우대금리**(1년마다 최대 3%p, 최대 6%p까지 우대) 적용 가능
- ④ (**햄살론유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 **1.2천만원**까지 보증부대출(금리 3.6~4.5%)

| | 새희망홀씨 | 햄살론 | 햄살론15 | 햄살론유스 |
|-------|--|----------------------------------|--|--|
| 신청 자격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 | | 만 19~34세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대학생·청년 |
| 한도 | - 3천만원 이내 - 별도 생계자금 5백만원 | 2천만원 이내 | 1.4천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1회 3백만원 연간 6백만원 이내 - (특정용도자금) 1회 · 연간 9백만원 이내 |
| 금리 | 연 10.5% 이내 (21년 평균 대출금리 5.9%) | 연 10.5% 이내 | 연 15.9% (보증료 포함) | 3.6~4.5% (보증료 포함) |
| 취급 기관 | 국내은행(14개) 영업점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및 저축은행 | - (일반보증) 국내은행 15개 - (특례보증)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 기업·신한·전북은행 |

사례 고금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금리가 올라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알아봤으나 낮은 신용 평점 때문에 대환이 어려워 고민이었음

⇒ 은행 상담 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였고 금융교육을 이수하여 추가 우대금리(0.1%p)까지 받아 금리부담을 낮추었음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Tip!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곤란이 생긴 차주

-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 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 [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 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 [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 [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 이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음. 다음 달이면 기존의 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중채무로 낮아진 신용평점 등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임

⇒ A씨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119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을 진행 할 수 있었음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
 -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

Tip! 급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 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음

Tip!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

- **✓ Check**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른 금융기관(은행 등)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

*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 ~ 9%에 달할 수 있음

사례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20년 전 가입해두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추후 여유자금이 생겨 보험 가입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음

⇒ 반면 같은 상황이었던 B씨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

-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
-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Tip!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사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천만원을 이용 중임. 오늘('22.7.19일)이 이자납입일인데 수중에는 2만원만 있고, 아르바이트 월급은 7.25일에나 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불가피해 보임. 고금리 연체이자까지 부담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2만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22.7.28일로 변경됨. 따라서 연체 발생없이 급여일인 7.25일에 여유있게 정상 이자만 납입하면 됨

* 1일치 이자 : $20,000,000\text{원} \times 4\% \div 365\text{일} = 2,191\text{원}$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 2021년중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은행 약 24만6,000건 및 은행 외 13만2,500건 수준

Tip!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 완화

- ✓ **Check**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됨
- ✓ **Check**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1 최근 취업에 성공한 A군은 취업준비 기간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 그러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자 부담을 덜게 됨

사례 2 장기간 대출을 연체없이 상환해온 직장인 B씨는 최근 CB사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신용평점 상승을 은행에 알리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받음

- 은행권^{*}은 '22.7.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이하 "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

| 구 분 | 종 전 | 개 선 (은행별로 상이) |
|------------------|--|---|
| 금리상승 제한폭(cap) | 직전 금리 대비 연간 <u>0.75%p</u> , 5년간 2%p까지만 인상 | 직전 금리 대비 연간 <u>0.45%p~0.75%p</u> , 5년간 2%p까지만 인상 |
| 가입비용 (프리미엄) | 대출금리에 <u>0.15%p~0.2%p</u> 가산 | 대출금리에 <u>0%p(한시적 면제)~0.2%p</u> 가산 |

Ti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
- ✓ **Check**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사례 A씨는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현재 2.5%, 6개월 주기 갱신)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음. 은행 창구를 찾은 A씨는 향후 6개월간의 금리는 기존 대비 1%p 인상(2.5%→3.5%)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하는 경우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인상(+0.2%p) 되지만 A씨와 같이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을 제한(최대 0.75%)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음**

⇒ A씨는 금리상한형 특약을 가입했는데,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다음 갱신 시(6개월 뒤) 금리가 또 1%p 인상되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비 최초 6개월은 0.05%p, 이후 6개월은 1.05%p 대출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음

Tip!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 가능

- * 은행·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적금 상품 및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 회사가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수준 등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 가능

- ✓ **Check**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

* 만기까지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음

- ✓ **Check**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

사례 1 주부 A씨는 금리인상기에는 예·적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 어떤 예·적금이 좋을지 고민하였으며, 예·적금을 선불리 가입하였다가 가입 이후에 금리가 더 상승하여 상승한 금리혜택을 놓칠까봐 걱정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만기가 짧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몇 가지 고른 후, 개별 금융기관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한 최종 금리수준을 전화 확인하여 비교한 후 가입을 결정

사례 2 직장인 B씨(신용평점 780점)는 급하게 목돈 1천만원이 필요하여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이 금리 7.0%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금리와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임

⇒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조회 결과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타 은행을 발견 후 심사를 받아본 결과 5.5%의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 1.5%p를 절감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

* 종래 (구)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법에서 법제화(과태료 대상)되어 있었으나 금소법 제정 이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 업권에 적용되도록 법제화

Tip!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

사례 소상공인인 A씨는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상담하였고 담당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펀드 등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직원은 "저금리 신용대출이라 거래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곤란하고 대출실행 1개월 이전에 미리 해당상품 가입신청을 해두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 A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펀드를 가입해야 하나 고민임

⇒ 대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출실행 1개월 전에 상품가입을 했더라도 금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Tip!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 관련 언론보도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예시] 시중은행의 취약 차주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은행 | 취약 차주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
|----------|--|
| 신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금리변경 없이 5년 만기연장 ✓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5년간 지원 (지원규모 2.5조원, 금리우대 0.7%p) |
| 우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신규 또는 기한 연장시 금리 최대 1.3%p(주택 담보대출) 0.2%p(전세자금대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24.부터 저신용등급 차주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우대 대상 : (기존) 내부신용등급 8등급 이내 → (변경) 전체 등급 |
| SC 제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중 거치기간 중인 계좌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1년만 선택 가능, 최대 총 거치기간 5년) ✓ 주택담보대출 중 원리금 상환 중인 계좌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 (원금상환 유예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
| 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내 만기도래하는 대출 중 금리 7% 초과 개인사업자 차주가 기한 연장시 최대 1%p 금리 우대 (감면 후 대출금리는 7%가 최저) |
| KB 국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액지원 (7월말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최대 2년간 지원) ✓ 개인사업자 차주가 기한 연장(재대출·대환 포함)시 대출금리 연 7%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 연 2%p 우대금리 제공 (7월말 시행 예정) |

* '22.7.13. 현재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고, 세부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개별은행에 확인 필요

- ✓ **Check**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

Tip!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

* 일반적으로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카드론 금리 보다 높음

-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설명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

* 평균수수료율('22.1분기 기준) : 결제성 리볼빙 14.83~18.48%

**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리볼빙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님)

* 소비자가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하는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대금과 리볼빙 이월 잔액 합계액에 카드사가 부여하는 최소결제비율(10~30% 수준)을 곱한 금액

사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A씨는 이사를 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이번 달 결제일에 임박했으나 전액 납부가 어려움. 리볼빙 서비스를 알아봤으나 수수료율이 연 17%라고 하여 고민이 됨

⇒ 리볼빙 신청 이전에 여타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금리수준을 확인한 이후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금융비용을 줄일 필요

- 다만, 중금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일 필요

-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 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21.1월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거래에 유리

-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

- ①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 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 ②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수 줄이기
- ③ 주거래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여 이용하기
- ④ 소액이라도 연체가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기
- ⑤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상환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 ⑥ 금융회사의 연체발생 주의 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에는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 ⑦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 하는 등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쌓기
- ⑧ 본인의 신용점수 및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하기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NICE의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KCB의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등

- ⑨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도 상향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지원위원회(신복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지원

- ⑩ 과도한 대출은 연체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은 신중히 결정하기

- 금리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

Tip!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등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 Check**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 **✓ Check**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폰에 특정앱을 설치하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
- **✓ Check** 사기범은 대출광고, 카드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접속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

*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탈취, 발신전화 가로채기, 휴대폰 위치추적 등이 가능

사례 자영업자 P씨는 정부지원에 따른 저금리(1.5%~3%) 특별대출 대상이라는 △△은행 안내문자를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대출 상담을 진행.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특정 URL에 접속하여 정체불명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및 기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 후 P씨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전화하자,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발신전화를 가로챈 사기범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용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P씨는 대출금 9백만원을 동 사기이용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를 봄

⇒ “저금리 특별대출 대상”과 같은 문구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지는 허위광고 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하고, 대출상담시 정체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도록 하며,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

(별첨1) 눈에 쑥쑥, 카드뉴스로 보여주는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별첨2) 귀에 쑥쑥, AI아나운서가 들려주는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금융꿀팁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유튜브 : <https://youtu.be/GxNTiu8HRNU>
- ② 페이스북 : <https://fb.watch/egOyjt7HgZ/>
- ③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7965849>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